

全羅山川



全州文化院

全羅山川

印刷・1991年 12月 5日

發行・1991年 12月 15日

編輯人・	張	明	洙
發行人・	金	光	鎬
主 幹・	宋	榮	相
編輯長・	柳	章	友

發行・社團法人 全 州 文 化 院
560-020

全州市 完山區 慶園洞 1街 58의 4

☎ (0652) 88-7500

印刷・鮮 明 出 版 社

☎ (0652) 84-2878

* 本 圖 書 是 全 羅 北 道 와 全 州 市 的 支 援 金 으로 出 刊 함.

■ 책머리 말씀 / 鄕土綜合誌 蘆嶺 編輯人 張明洙	8
■ 편찬의 말씀 / 全州文化院長 金光鎬	10
■ 격려의 말씀 / 全州市長 金	12

◎ 第1部 全北禮讚

1. 康炳基 / 風流的인 床차림은 藝의 경지	19
2. 高昌煥 / 全北은 나의 精神的인 支柱	23
3. 金權瑛 / 湖南平野처럼 理解心도 넓어	26
4. 金광휘 / 내 유년의 수채화, 그 전주	30
5. 金東圭 / 입맛 돋구는 미각과 文化産物들...	35
6. 金修平 / 全北은 외할머니의 품속	39
7. 金安濟 / 오화한 성품이 精神文化요람지 形成	43
8. 金良培 / 아들위해 군불지피는 母性の 故鄕	46
9. 金永光 / 活火山같은 愛鄕運動에 큰 感銘	48
10. 金妍植 / 광활한 湖南들녘같은 마음을	53
11. 손정목 / 丙子年の 水害와 全北地方	57
12. 宋瑞圭 / 安溫하게 감싸주는 어머니의 품안	61
13. 申瑢俊 / 역사가 숨쉬는 고장	65
14. 安先求 / 광활한 평야에 풍성한 農心	69
15. 安泳 / 全州川 냇물에 발을 담그고	72
16. 柳秀澤 / 자랑스런 내마음의 故鄕	76
17. 張勳 / 雀舌茶 향기같은 淡泊한 品性	81
18. 曹榮哲 / 뛰어난 선비 정신과 貞節의 고장	85
19. 中村富貴 / 全州는 가슴 뭉클한 마음의 故鄕	88
20. 千金成 / 德津뭇 연꽃 지금도 여전합니까	90
21. 崔相哲 / 全北과 故 徐相喆박사	95

● 第2部 故鄉을 생각한다

1 · 金 鎰 中 / 梧木臺 풀섶에 누워 흰구름 보고파	101
2 · 金 宗 殖 / 麒麟峰 은빛 햇살속에 작은 詩人 꿈 펼쳐	105
3 · 金 宗 殖 / 다알리아 꽃잎에 어둠이 내릴때	109
4 · 金 鍾 喆 / 울보였던 어린 時節의 꿈	112
5 · 金 澈 鎬 / 秀麗한 故鄉山川은 나의 요람	116
6 · 盧 時 平 / 돌하 노피곰 도드샤의 井邑詞 고장	120
7 · 文 斗 根 / 全州 단 하나 우리의 영원한 故鄉	124
8 · 朴 英 秀 / 全州川에서 물장구를 치고 싶어	128
9 · 朴 杉 沃 / 故鄉이 싫다고 생각도 않는 사람이 있을까? ..	132
10 · 徐 垠 錫 / 群高野珠 보면 마음은 故鄉의 토방에	136
11 · 宋 榮 寬 / 꿈에도 그리운 내 故鄉	140
12 · 宋 正 德 / 苦樂의 同感이 故鄉 은혜 같은 길	144
13 · 申 吉 秀 / 마당재와 임봉리의 全州 時節	146
14 · 陸 完 珉 / 어머니 품안같은 내 故鄉	149
15 · 尹 大 作 / 가슴속에 사랑의 싹이 솟는 곳	153
16 · 尹 山 鶴 / 자랑스런 고향의 전설속에 信義를 배우고	158
17 · 李 文 成 / 고향 명칭의 가게에 자주 들러	162
18 · 李 尙 潤 / 섬진강가의 천렵이 그림고...	166
19 · 李 鍾 哲 / 故鄉에 설치된 병어리 受話機	169
20 · 李 鍾 哲 / 民衆文化의 숨결 全北民俗村	172
21 · 李 鍾 哲 / 人情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	178
22 · 李 忠 雨 / 高敞 靑磁가마터를 올림픽 觀光地로	183
23 · 李 惠 淑 / 당신의 넉넉한 품에 안기고 싶어	187
24 · 林 廣 淳 / 나를 키워준 또 하나의 어머니	191

25 · 林 哲 洙 / 故鄉! 듣기만해도 얼마나 그리운가	193
26 · 林 亨 淳 / 井 友 會	200
27 · 張 峰 / 토박이 R兄에게	205
28 · 全 鍾 倫 / 竹島의 병풍바위가 그림다	209
29 · 鄭 敎 寬 / 매웁한 모닥불 연기... 코에 스미는 듯	212
30 · 趙 康 來 / 古典都市로의 歸還을 염원하며	217
31 · 主 욱 연 / 고향사투리만 들어도 반가워... ..	221
32 · 黃 炳 祖 / 기린봉 밑엔 지금도 저녁놀 피겠지... ..	226

風流的인 床차림은 藝의 경지

康 炳 基

■ 漢陽大學校 敎수

자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양반의 체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노령지의 편집인이 타향인으로 하여금 전북예찬론을 쓰게 하는 고도의 기교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본인도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나 문제는 본인이 너무도 전북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미인의 뒷모습을 칭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할까 두렵다.

삼년 전에 기회가 있어 일본에 오랜 동안 머물렀는데 어쩌다 가나자와(金澤)라는 일본의 북륙(北陸)지방(日本例島の東海側 중간지대)에 있는 석천현청(石川縣廳) 소재지에 몇 번 가게 되었고 현청이나 시청 간부들 그리고 그 지방의 식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때 가나자와 사람들에게 한국에 전주라는 역사가 길고 유서깊은 도시가 있는데 한번 상호교류나 자매결연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역설해 두었다.

가나자와는 일본에서 소경도(小京都)라 할 만큼 경도(京都)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차대전 때에도 그 문화적 가치로 해서 경도와 가나자와 두 도시는 B29의 폭격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도시로 유명하고, 동경대학의 대명사로 쓰이는 아까몽(赤門)은 이곳 가나자와의 영주였던 가하(加賀)씨가 동경(당시는 江戸)의 사저에 새운 대문을 지칭한다.

전재를 면할 수 있었고 다행하게도 낙후지역에 입지한 까닭

에 일본의 고도성장의 물결이 이곳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지금도 이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 죽은듯 조용한 고도의 모습을 간직해오고 있다. 일본이 고도성장에 대한 반성기에 들어선 70년대 후반부터는 이 도시가 보수적이라 만큼 고수해 오던 순수 일본적 문화와 전통적 공예기술에 대한 재평가의 바람이 일고 있어 국내외에서 불편한 교통편을 무릅쓰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또 市행정부와 시민들은 이러한 세태의 변화에 힘입어 전통적 지방산업의 육성보호와 고도적 경관의 보전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가나자와市는 아직 관광도시화되어 있지 않기에 관광도시보다 더욱 매력적이랄 수 있다. 전주는 한국의 가나자와적 존재라고 생각될 만큼 차분하고 아직 관광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점이 무척 좋다.

전주를 소서울이라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기야 내가 마지막으로 전주를 가 본 적이 족히 5~6년이 지났으니까 유례없이 빠른 국토의 변모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중도시가 5~6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도시 전체가 경제발전과 너무 등지고 있을 수야 없겠지만 모악산을 배경으로 한 차분한 도시의 전체적 이미지는 내가 찾아갔던 5~6년 전에도 우리 나라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일종의 감동을 줄만 했었다.

외계의 경제개발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태풍의 눈처럼 정숙 감마저 감도는 교동일대의 거리와 사람들의 거동이 의연하게만 느껴졌었다. 시대의 흐름에 등을 돌리고(혹자는 시대적 상황이 이 곳에 개발의 삽소리가 없게 한 일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양반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내가 등을 돌린 것으로 말하지 않는가)유구한 삶을 이어가는 거룩함

을 엮은 것 같았다고 말하면 좀 과장이 될까?

부디 내 기억 속의 전주여, 내가 이국땅 가나자와시에서 문득 문득 전주를 상기하였던 것처럼 문화와 전통의 내음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그렇다고 골동적인 문화와 전통이 아니라 현대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러한 현대적 문화와 전통의 온상이자 창조자가 되어 주기를 예찬자로서는 바란다.

현대에 숨쉬는 전통과 문화의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전주의 식문화를 생각해 보고 싶다.

내가 듣고 또 알고 있는 전라도 식문화는 상다리가 휘어질 것처럼 늘어 놓고 포개어 놓은 산해의 미각이 총망라된 한정식상 차림에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비옥한 농토에 경제적 기반을 가진 지주계급들의 부가 찬의 가지수를 늘이게 하였을 것이고 양반가의 맑은 미각감각이 맛을 세련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멋을 갖들게 하였을 것이고 예능과 풍류의 환경이 상차림을 예의 경지로까지 끌고간 데다 비옥한 농경지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손님에 대한 인정을 권식(勸食)으로 표현하는 한민족의 미숙이 날렵한 개다리상의 다리를 휘게 하였을 것이다.

이 전라도 상차림을 보면 분명 우리네 조상들도 불란서 사람이나 중국 사람 못지 않게 식사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영양섭취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을 즐겁게 하고 알차게 하는 문화적 차원으로 올려 놓았었다고 생각한다. 상 위에 차려 놓은 찬의 가지수와 양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먹이로 본다면 지나치리 만큼 많아 낭비적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먹는다는 행위를 예술이나 예능처럼 자기 표현이나 감상 즉 삶을 즐기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상 위에 차려 놓인 음식을 씹기 위해서라기 보다 눈으로 보고 젓가락으로 느끼고 향기를 맡고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차린 것의 몇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진정 먹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나 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불란서 사람이나 중국 사람 못지 않게 길고 그말만큼 식사를 통해 삶의 실감을 즐기는 것이다.

영국의 귀족 샌드위치 백작이 근엄한 영국식 식사 습관 속에서 자랐으면서 샌드위치라는 약식이면서 고루 갖춘 식품을 발명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샌드위치와 비빔밥의 비교는 엉뚱할 것 같으면서 일맥 상통한 데가 있다. 비빔밥이 어느 지방의 발명식품인지 알 길이 없으나 유독 전주비빔밥이 유명하기에 전주의 양반문화와 결부시켜 보는 것이다.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 찬들을 먹을 만큼씩 조금씩 고루 하얀밥 위에 얹은 것은 백지 위에 그리는 그림과도 같아 하나의 예라고 보아진다. 샌드위치처럼 간단하게 또 빨리 먹는다는 목적과 즐긴다는 맛이 공존하는 식품이다. 이 때 국물을 따로 찬으로 독립시키고 있는 점이 반가의 문화에 뿌리를 둔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이다.

상민의 문화에 뿌리를 두었다면 그것을 국밥이요 해장국, 육계장 따위의 혼합식 먹이가 된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개밥이나 소죽처럼 오직 간단하게 빨리 뱃속으로 처 넣기 위한 섭취물로 전락해 버린다. 아슬아슬하게 천하게 되기 직전에서 체면과 격식을 갖추면서도 영양섭취라는 내실도 기하고 있는 것이 전주비빔밥이 아니겠는가. 체면을 살리면서도 현실의 상황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그 적응의 과정이나 결과를 하나의 문화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예향으로 그 이름을 떨치게 했듯이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화될 수 있는 앞길을 모색한다면 전북인의 좀 느린 성격이 단점이라기 보다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蘆嶺 1983년 7월 제21호>

雀舌茶 향기같은 淡白한 品性

張 勳
■ 住公 監査室長

년 전의 보슬비가 내리던 봄날 나는 고창 선운사에 갔었던 일이 있다.

선운(仙雲)의 안개에 쌓인 동양화 화폭의 신비스런 산수화 처럼 산사는 고즈넉히 비에 젖고 있었다. 그 때 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전북에서 재임했던 1년 동안 몇 차례를 찾아갔었다. 그러다가 그 곳의 명산인 작설차를 알게 되었고 어렵게 구해 서울로 돌아온 지금도 가끔 아무 것도 가미가 되지 않은 우리 고유의 작설차를 끓여 들며 전북 생활의 향수에 젖는다.

내가 봤던 선운사의 신비스런 안개처럼 작설차를 들 때마다 전북의 여러가지 모습과 즐거웠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곤 한다. 이제 내가 전북을 떠나온지도 2개월여가 된다. 서울 특유의 쫓기듯 바쁜 출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남으로 나 있는 창을 바라보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마치 선운사에 찾아 갔던 년 전의 봄비처럼 그렇게 내린다. 연꽃 향기가 은은한 덕진호반 기린봉의 웅장한 산자태 아카시아꽃이 흐드러지던 다가공원, 가도가도 끝이 없던 계화도의 황금별판, 불타던 단풍의 내장산, 주말이면 찾았던 모악산과 마이산 그리고 옛 풍류와 멋이 아직도 남아 있는 한벽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전북은 맛과 멋이 비빔밥처럼 잘 조화되어 어우러져 있는 고전문화의 지방임에 틀림없다. 음식 한 가지에도 갖은 정성이 담겨 정갈하게 만들어져 있고 반찬 가지수도 풍성한 인정만큼이나 만족할 정도로 많다.

한일관의 해장국은 내가 서울 등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대접해 드리던 음식이었으며, 비빔밥은 꼭 빼놓지 않고 들고 가도록 권유를 했다.

가는 곳마다 서화 한 두 점씩은 의례히 걸려 있는 예술의 고장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면 이런 맛과 멋을 누리는 것은 그만큼 전북인들이 풍부한 정서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과문한 탓으로 잘은 모르지만 서예의 대가들도 많고 화가, 시인, 수필가, 소설가, 아동문학가 등의 예술인이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풍토 속의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전례 없이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인정체전을 치뤄 내기도 했을 것이며 또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는 친밀감과 포용력을 가지고 대하는 소박한 인심이 더욱 전북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 1년 동안의 객지 생활이었지만 전북인들의 많은 후원과 협조 속에서 소기의 소임을 다해낼수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택문제를 전북처럼 유기적으로 유관기관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속에서 중지를 모으고 상호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 전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약, 전북주택건설 유관기관 협의회의 협조, 나는 이런 분야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의 井邑詞의 고장

盧 時 平

■前 서울味元弘報室長

■味元그룹弘報理事

고향! 말만들어도 얼마나 그리운 말인가,
흔히 누구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제2의 고향이네, 정신적
인 고향이네 하는 말을 너무 쉽게들 하고 있는데 나는 참말로
고향을 한시도 잊어 본적이 없다.

지난 민속의 날 그때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실로 오랫동안
에 법정 공휴일로 제정한 민속의 날을 맞아 눈발이 날리는 날
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이며 고속버스 터미널에 몰려든 문
자그대로 인산인해의 인파를 보면서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가
를 더욱 느꼈으며, 고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얼굴이 마냥
즐겁게만 보였다.

내 고향은 전라도, 정읍골이다.
옛부터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고장,
옛부터 음식 솜씨 좋기로 손꼽히는 고장,
옛부터 이름난 내장산을 찾는 발길이 멈출 줄 모르는 고장,
옛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없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를 불
러오는 동학의 녹두장군 전봉준이 태어난 고장,
옛부터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다시 또 찾아오고 싶어하고 아
예 이사와 살고 싶고, 싶어하는 고장,
옛부터 달하 노피곰 도다샤란 정읍사 민요로 유명한 고장,

옛부터 풍수지리 산세가 좋아 명당자리가 많은 고장,
옛부터 기름진 땅이 많아 먹고 살기에 걱정없는 고장,
우리 고향, 내 고향 정읍골은 정말 살기좋은 고장이다.

동쪽으로는 내장의 줄기가 우뚝 솟아 한아름 안듯 두손을 쭉
욱 뻗은 산세이며 서쪽으로는 드넓은 평지의 논·밭이 풍년가
를 올려주어 오곡백과가 풍부한 고장이다. 내 어찌 이런 고향
을 잠시라도 결코 잊겠는가 말이다. 하루 종일 여기 저기 아
무리 걸어 다녀도 싫증이 나지 않고, 맑은 공기 그리운 산천,
순박한 인심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짜증난 객지생활, 비틀거리는 도시속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
야 하고 전국각지 방방곡곡을 찾아다녀야 하며 세상 사람 모
두를 상대로 해야하는 직업,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
이고 간에 찾아가야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신은 피로하고 그렇다고 해서 촌지도 방심해서
아니되는 긴장된 소위 주인의식을 갖어야 되는 직업을 갖는
나로서는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가를 모르겠다.

서울 거리를 걷다가도,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고향땅의
지명으로 된 옥호의 간판을 보면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고
혹 끼니 때가 닥쳤을 때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고향의 지
명으로 된 음식점을 찾아 들곤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특히 미원조미료, 미원 맛나의 상표를 보았을 때도 반가울 뿐
만 아니라 미원이란 글씨만 봐도 고향을 찾은 것 처럼 포근하
다는 말도 된다. 좀 배타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미원은 우
리 전라도의 미원이며 전라도의 미원이 한국의 미원이고 전라
도의 미원이 이제는 세계의 미원으로 되지 않았겠는가 말이
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밀가
루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서구라파 사람들도 이제는 미원을
빼놓고는 식탁의 맛을 느낄수가 없다고들 하고 있으니 미원은

인류의 조미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원의 창시자도 우리 정읍골 출신이며 미원은 전라도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니만큼 어찌 정읍골 고향이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어느날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쳐 손놀림이 바쁜 주부가 아이를 시켜 「애야! 미원좀 사와라」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구멍가게에 가서 무조건 「미원 줘요」 하게 되었으니 조미료의 대명사가 미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원과 함께 반평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고향이 정읍골이요 미원의 고장이 정읍골이며 정읍골의 대명사가 미원일진대 미원하면 고향이요 고향하면 미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나의 제2의 고향은 바로 미원이란 말이 된다.

산 좋고 물 맑은 내 고향 산천을 유유자작 한가롭게 둘러 본 적도 오래가 되었다.

정신없이 바쁘게 뛰다보면 어떤 때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고향이다.

내가 태어나고 청운의 꿈을 키워온 고향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인지상정이다.

사람이 정을 느낀다는 말은 기가막히게 좋은 말이며 또 적절한 표현인 것이다.

어릴 때 뛰어 놀던 양지바른 뒷동산이 비록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어느 명승지에 못지 않으며 고층빌딩이 들어서지 않은 고향의 시가지라 할지라도 세계 어느 변화가 못지 않게 정답고 쾌적한 고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저런 생각에 잠시나마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만해도 그지없이 행복하고 마음 편한 시간이 없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올고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황토현에 우뚝솟아 있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과 전봉준장군의 생가가 정읍에 있데서가 아니라 전국·남녀노소 누구나가 심심찮게 부르는 파랑새란 민요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국문학의 대표적인 가사 정읍사가 또 있는데 이 정읍사는 고전연구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알고 찾아서 가꾸는 고전연구에 오늘날의 구비전승된 민요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룽디리
전저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대를 드대올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가논대 겹그랄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정읍사.

백제시대의 노래로 가사가 전해오는 정읍사는 상인의 처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에 오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진흙의 더러움에 비유한 정읍사는 달님에 대한 기원, 남편에 대한 염려 자기의 갈길의 불안 등이 조리있게 엮어져 후렴 또한 밝고 아름다운 여운을 주는 가사문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내고향의 삼라만상이 온통 그림기만 하다.

가깝고도 먼 서울의 하늘밑에서 정읍사 민요와 파랑새 노래를 읊어본다. ■

<蘆嶺 1985년 3월 제30호>